

## 기업공개 및 상장(IPO)도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캐나다 증권시장(TSX) 소개와 그 활용방안

대부분의 우리 벤처기업들의 목표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및 상장하는 것이다. 상장을 통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조달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장은 절차나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제약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다 상장 절차가 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대체시장이 없을까?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 증권시장 TSX(Toronto Stock Exchange)이다. 이제 기업공개 및 상장도 목표가 아닌 기업경영의 한 중요 수단으로서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이다. 글로벌 증권시장, 즉 뉴욕, 나스닥, 일본, 런던, 홍콩 등지에도 증권시장이 있지만 특히 캐나다 증권시장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TSX(Toronto Stock Exchange)란

캐나다 증권시장은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TSX와 100년 역사의 TSX Venture Exchange(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 해당)를 합쳐서 일컫는데, 상장회사 숫자에서 세계 2위(북미 1위), 시장내 자금조달 규모면에서 세계5위, 시가총액면에서는 약 2조달러로 8위(북미 3위)의 시장이다. 특히 상장되어 있는 기업수가 3,842개(06년 기준)로 나스닥의 3,133개보다 많다. 이는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중소 벤처기업들이 상장하기가 쉽고 또한 자금조달 성공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TSX는 이미 캐나다 시장이라기보다는 북미, 아니 글로벌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상장하려는 회사들이 문을 노크하고 아울러 벤처기업 M&A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글로벌 쇼핑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TSX는 세계 자원개발 관련 상장회사의 60%이상이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최대의 자원개발 자본시장이기도 하다.

한편 TSX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해있고, TSX-V는 밴쿠버에 거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 서부의 관문인 밴쿠버는 오랜 세월 동안 북미의 벤처기업(초기에는 광업을 위주로)의 산실이자 금융조달 도시로 발달되어 왔는데, 요즘은 중국 및 세계화교의 자본과 기업들로부터 북미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자원개발 뿐 아니라 IT, BIO, 환경 등의 기술집약적 업종의 벤처기업들이 왕성하게 몰려드는 요지가 되었다.

우리 벤처기업은 TSX-V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에 상장하기엔 아직 멀고 나스닥에 상장하기엔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운 규모에서는 이 시장이 우리벤처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글로벌 상장

가능케 해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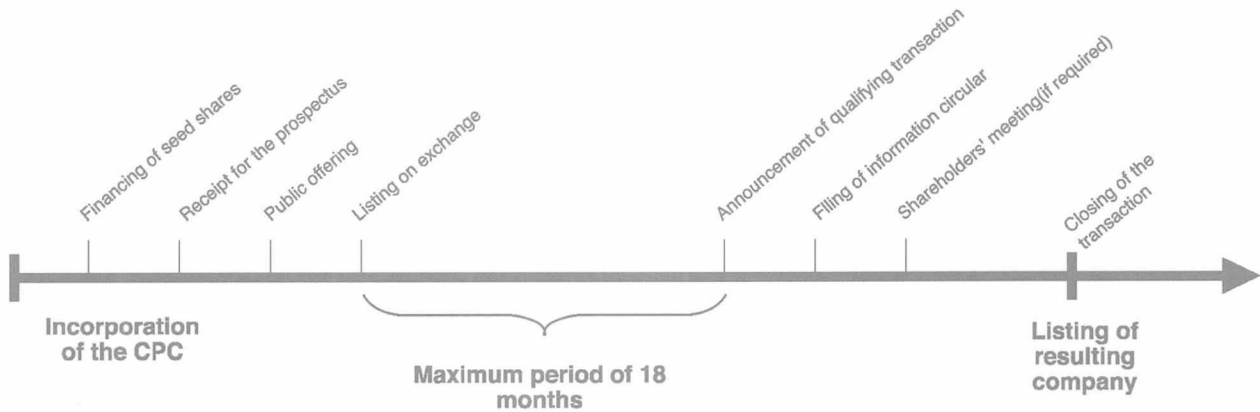
### TSX-V(Venture Exchange) 진입하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되어있는 TSX-V는 2,080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작년 67개회사가 상위 시장인 TSX로 이동했다. 상장하려면 매출 5~25만 불이상, 자산 50~500만 불이상, 최소 200인의 소액주주가 총 50만불, 지분 20%이상 분산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나 진입장벽자체가 아주 낮으며, 특히 매출실적이 없는 R&D단계에 있는 회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시장만의 또 다른 독특한 상장방식이 있으니, 이는 Shell Company 인 CPC(Capital Pool Company)를 설립 및 상장시키고(기존 CPC의 매입도 가능) 자신의 회사(목표회사) 또는 자산을 RTO(Reverse Take-Over)하여 간단히 IPO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다. 걸리는 시간도 준비 여하에 따라 짧게는 3~4개월만에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우리 벤처기업들에게 글로벌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뿐아니라 글로벌 전략적 제휴, 마케팅 등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필요하면 글로벌 경영자 및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가 있어 엔지니어 출신 오너의 벤처기업에겐 무한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조력자들과 협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 있는 회사자체의 영업, 조직 등을 그대로 가져갈 수있고 심지어는 캐나다 현지에서 상주할 직원을 파견할 필요도 없다. TSX-V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1 기존 회사의 외형은 그대로 둔채 영업양수나 타기업 인수 등을 통해 사업목적은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성격 자체를 신생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기업

## Overview of the Process



(CPC를 이용한 TSX-V시장 IPO 절차)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소 벤처기업들 뿐 아니라 국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견 벤처기업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과실들이 무궁무진한 매력적인 자본시장임에 틀림없다.

### 가자! 글로벌 증권시장으로

우리의 벤처정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 IT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해외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신력과 기술력 등에 비해 진정 글로벌화 되어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몇이나 되는가! 좁은 우물 안에서 한정된 시장,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편으로는 선진시장을 공략한다는 기치를 내세우며 현지 판매법인, R&D법인 등의 형태로 진출하였지만 실상은 상당 부분 빗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초중기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들에겐 국내의 증권시장 IPO는 물론, 양질의 벤처자금의 조달자체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멀리 보고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증권시장을 하나의 아웃소싱대상으로 잘 이용한다면 우리의 벤처기업들은 포효하는 범이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이다.

TSX-V는 머나먼 해외 증권시장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 마을에 있는 하나의 우수한 효용성을 가진 시장이다. 우리의 벤처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솟아오르는 뜨거운 열정과 피어오르는 많은 꿈이 적기에 현실화가 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겠다.

## 캐나다 TSX 상장전략 설명회 개최

(사)벤처기업협회는 캐나다 TSX 증권시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벤처기업들의 TSX 상장을 위한 절차 및 제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캐나다 TSX 증권시장 상장전략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0월 18일(목) 15:00 ~ 17:00  
(벤처코리아 2007 행사 연계)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3호
- 주최 : (사)벤처기업협회 & TSX(Toronto Stock Exchange)
- 행사일정

Time	Program	
~ 15:00	Registration	
15:00	Introduction	Host
15:10~15:30	국내외 증권시장 환경 비교	대우증권
15:30~16:30	TSX 개요 및 상장안내	TSX
16:30~17:00	Q&A	Attendee

- 참석 문의
  - (사)벤처기업협회 사업2팀 박태근 대리
  - 전화 02-890-0622 / 이메일 tony@kova.or.kr